

주민 건강증진 공간 '생활체육관' 건립

날씨 상관없이 연중 운동 가능 ...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성지역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인 생활체육관이 건립돼 주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또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역 체육발전에도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생활체육관을 건립했다.

지난 12일 준공식을 가진 생활체육관에서는 첫 대회로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렸다.

간성을 상리 40관리대대 이전 부지에 자리잡은 생활체육관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다.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1,650㎡, 건축면적 823㎡ 규모로, 실용적이며 아름답고 웅장한 현대적 시설로 건립됐다.

지상 1층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지하1층은 체력단련장, 화장실 등의 주요시설이 배치됐다.

특히 실내체육관 내부에는 무대가 설치돼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생활체육관은 주민들이 건강을 다지고 인생을 즐기는 장소이자 화합



고성지역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인 생활체육관이 건립돼 지난 12일 준공식을 가졌다.

을 다지는 장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며 "생활체육관 건립으로

스포츠 휴양도시 건설과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전국 배구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 열려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고성종합체육관 등 6개 체육관에서 90개팀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9인제 경기방식으로 남녀 각각 클럽 1, 2, 3부, 장년부, 대학부, 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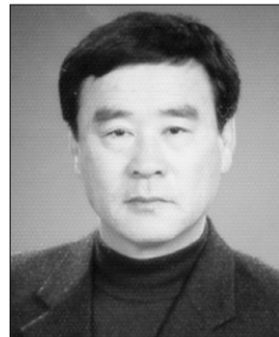
발리부로 나눠 진행됐다. 남자부는 시니어부가 추가됐다.

고성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완벽한 지원 및 진행으로 내실있는 대회를 운영했으며, 친절한 손님맞이로 시·군간 우호를 증진시켰다.

홍순홍 고성군 배구연합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집체된 지역경

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참가선수단과 응원을 온 가족들에게 고성군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관광 자원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3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제12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



홍순홍 고성군배구연합회장

배구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이번 대회까지 2년 연속 전국 규모 배구대회를 유치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갈래길 개척

고성군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선호)와 5개 읍면 조사요원 등 10여명을 편성해 3월 31일까지 '고성갈래길' 구간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또 4월 11일부터 5월13일까지 갈래길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고성갈래길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2]

독립운동가 김연수(金延洙), 당시27세

1895년 5월 17일 ~ 1928년 9월 10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운봉리(雲峰里) 223番地이다.

선생은 동향인(同鄉人) 이근옥(李根玉)의 권유로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한 이래로 양양(襄陽)·간성(杆城)지역의 비밀문서를 짚신바닥에 숨기고 철원을 경유하여 서울에 연락하였으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에 파급되자 동년(同年) 동월(同月) 14일 선생은 간성(杆城)지역의 토성면 교암리(橋岩里)·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 등지에 격문을 제시하여 민족자결 의식을 고취시키며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을 달

성하기 위하여 토성면 교암리 장날을 이용하여 군중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교암리 장날 이용 군중 동원해 독립만세 운동 주도

1963년 대통령표창·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동년(同年) 10월 하순(下旬)에 토성면 운봉리(雲峰里)의 이근옥(李根玉) 자택에서 이석규(李錫圭)·문명섭(文命燮) 등과 함께 상해로 건너가서 가정부에 들어가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진력하지는 취지

를 교사 받고, 동인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각각 여비를 조달하여 동월 30일 경에 동군(同郡) 간성(杆城)에서 이근옥·이석규·문명섭 등과 합동하여 동지를 출발, 철원에 이르러 이연수(李延洙)를 회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성(京城)에 나와서 애국단본부(愛國團本部)를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이를 찾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석규·문명섭 등과 다시 귀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20년 1월 철원애국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피체(被逮)되어 동년(同年)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정치범죄처벌령 제1조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

167조 제2항에 의거 재판에 회부(回附)된바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권 9, p.p990~1008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 第 1卷, 光復會江原道支部, 1991年, p.332.

『고성군지(高城郡誌)』1998年, p.140.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권7, p.362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